버슬 ㄴ 을 中心으로 본 流行의 週期性 硏究

具 美 志
林 元 子

〈目 次〉

Ⅰ. 序 論
Ⅱ. 文獻考察
1. 週期性에 관한 考察
2. 실루엣과 디테일의 관계
3. 버슬에 관한 考察
Ⅲ. 硏究方法 및 절차
Ⅳ. 分析 및 論議
Ⅴ. 要約 및 提言

Ⅰ. 序 論

歷史는 변화하고 있다.[13]

이 역사적 변화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連續性에 있다.

만일 이 연속성이 부정되고 단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역사적 고찰은 무의미하게 된다.[1] 그런데 이러한 연속성의 측면이 가정된다면 역사적 연구는 그 변화의 패턴, 규칙성 및 유사성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가능해진다.[11]

역사적 연속성의 가정하에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목적을 갖고 진행되었다.

연구목적 1. Kroeber와 Richardson,[19] Young[36] 등은 유행의 주기적 변화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Troxell과 Judelle[32]은 이러한 주기가 현대적 환경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기성의 개념을 문헌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주기의 현대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2. 유행하는 한 의복 스타일은 곧 그 시대의 경제·사회 및 기타 현상들 즉 그 시대감각을 반영하는 실루엣이 표현된다.[3][6] 즉, 같은 버슬 실루엣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특성에 따라 다른 외곽선과 내부의 구조 즉 스커트길이, 스커트폭, 허리선 등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고,[23] Contini[14] 등에 의한 것처럼, 19세기 이후 용도에 따른 복식구조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유형을 살펴보되, 버슬 스타일에 한하여 19세기와 20세기의 시대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디테일들과 버슬형태와의 상관성을 분석해보아, 버슬의 현시대적 위치를 새로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행의 주기적 변화를 스타일 자체내의 변화에 촛점을 맞추어 스타일의 형태적 변화만을 다루었고, 복식사에서 버슬에 대한 고찰은 자료분석과 관계된 19세기에 집중하였으며, 여러 디테일들과 버슬구성형태와의 상관만을 다루었다.

Ⅱ. 文獻考察

1. 週期性에 관한 고찰

Horn[17]에 의하면, 유행의 주기적 성질은 한 스타일의 의복이 퍽 규칙적인 간격에서 재현되는 경향과 관계하며, 이들 스타일의 재현은 결코 완전한 반복이 아니라[30] 그중 특정한 요소만이 나타난다.

이러한 의복의 주기적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은 첫째, 규칙적인 간격에서 재현되며,[17] 둘째, 연속성에 기초하며,[17][28] 세째, 점진적으로

변화하며,[30)32)] 네째,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의 진동을 한다[19)]는 것이다.

예를 들면, Kroeber와 Richardson[19)]의 분석에서, 의복에 대하여 여섯부위별로 측정한 치수중 세 의복부위에서 100여년의 주기적 진동을 발견하였다. 즉, 넓은 것에서 다시 넓어지기 까지 약 1세기가 걸리며 적은 동요만이 있었다. 그 예로 스커트의 폭이 가장 넓어져서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1570, 1660, 1750, 1860年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각각 점차 가는 실루엣으로 줄어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Young[36)]은 스커트 형태와 실루엣에 따라서 세 형태, 즉 'back-fullness', 'bell-shape', 'tubular'의 세형태로 분류하고 이들이 일정한 순서를 가지며 규칙적으로 재현됨을 입증하였다. 결국 한 형태의 스커트는 약 35年間 지속되며, 각 기본적인 실루엣들은 100여년의 간격에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유행의 변화에서의 패턴의 존재는 유행에 대한 연구와 예측의 가능성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Robinson[28)]도 같은 유형의 자료로 위와 유사한 주기성을 발견하였다. 또 Horn,[17)] Lang과 Lang,[20)] Reynolds[27)]는 한 유행이 장기적으로 볼때 계속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의 지속적인 관찰로 유행변화의 주기적인 규칙성을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주기성의 개념이 예측에 좋은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에서와 같이 유행의 변화에는 뚜렷한 의미와 방향이 있고,[17)23)31)] 그 시대를 특징짓는 전형적인 의복의 완만하고 계속적인 변화[25)30)]의 과정이기 때문에[36)] 유행에서의 주기성의 개념은 변하기 쉽고 무질서하며 완전히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유행에 관한 종래의 생각에 대하여 반증을 제시하며, 변화의 규칙성[28)]을 발견할수만 있다면 예측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수년동안 재현되는 유행의 변화에서는 사회의 변화패턴이 과거와는 다른 특이한 요소가 고려되어야하고 또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이론이나 발견된 법칙을 적용시키는 점에서는 문제가 따른다.

Carmen[12)](1973)은 Kroeber와 Richardson이 사용한 자료에서 1937年 이후의 최근 자료들을 더하여 여성 야회복의 변화에 존재하는 규칙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1934年 이전까지의 자료에서는 Young[36)]의 가설이 지지된 반면, 그 이후에서는 Young Cycle 주변에 좀 더 짧고 다른 특성을 갖는 주기의 진동이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주기성을 가정하고 시행된 연구들에서, 유행의 계속적이며 규칙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한 사회행동으로써, 발생하는 환경과 서로 상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과[15)23)] 둘째, 유행 자체의 자율적인 스타일의 발전[17)]으로 설명하고 있다.

Horn,[17)] Roach와 Eicher[26)] 등은 위의 두 관점을 명확히 분리시키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연구에서는 한쪽 관점에서 유행의 주기성을 살펴보거나 두 관점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채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첫번째의 결정론적(deterministic) 관점[17)]은 유행주기에 환경적 요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유행변화에 대하여 해석하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유행변화는 유행이 존재하는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구조와 제도에 관한 파악[32)]과 경제적 요인[32)]과 문화심리적 배경[19)]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두번째, 스타일의 자율적 변화의 관점은 스타일내에 자율적인 하부체제[22)]를 가지며 유행변화를 그 내부에서의 변화에 대한 간등이나 마찰, 또는 Creekmore[15)]나 Kroeber와 Richardson[19)] 등이 제시한 이상적 비례 혹은 패턴의 개념을 향하여 복귀하려는 힘들의 상호작용으로써 본다. 즉, 한 시대의 실루엣은 그 시대적 이상을 반영하며 변화하는데, 그 스타일내의 디테일들의 관계는 그 시대의 美에 대한 가치나 태도, 곧 미학적 법칙의 표현이라 할 수 있고,[17)22)] 디자인 요소에 의해 부여되는 다양성은 결국 스타일에 다양성과 개인적인 요소들을 부여하게 되고,[31)]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패턴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패턴을 유지하려는 힘과

변화를 요구하는 힘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변화의 전제는 스타일 변화의 자연적인 연속성에 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이전시대의 재현스타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은 이전 것과는 다른 형태나 요소를 갖는다.[30]

그러나 위의 두 입장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반면, 역사의 커다란 틀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스타일의 내부구조의 변화가 사회문화적 체제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22] 즉 스타일의 변화는, 일부는 스스로의 통제에 의한 자율적인 것이며, 일부는 하부체제의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에 의해 추진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조건이 반드시 원인이 되어 변화한다기 보다는 단지 변화할 때 그 당시의 사회적 영향에 의해 과열되거나 방해받으면서 변해간다.[18] 이 때 외부압력이 충분히 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구조적 변화 즉 Kroeber와 Richardson[19]이 말한 패턴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2. 실루엣과 디테일의 관계

의복의 본질적인 요소는 실루엣이라 할 수 있다.[32] 이순홍[3]은 실루엣, 칼라, 재질 등의 유행변수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실루엣이라고 규정하였다. 다시말하면, 유행의 역사는 실루엣의 변천이며,[4] 의복의 새로운 감각은 실루엣에 의해 지배되므로 그 시대의 감각은 실루엣에 민감하게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3]

실루엣은 디테일의 변화를 통하여 한 실루엣에서 다른 실루엣을 결정하는 개별적 요소들의 경향이 극단에 도달할 때 경향(trend)의 역전이 일어난다.[31][32]

Troxell과 Judelle[32]은 실루엣이나 칼라, 재질, 악세서리 등은 각각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특성때문에 실루엣에서의 변화가 색깔이나 재질, 디테일에서의 변화보다 더 늦다고 하였고, McJimsey[23]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하였다. 또 Winakor[35]는 실루엣을 결정하는 요소와 디테일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 실루엣의 결정요소 중에서 스커트길이와 같이 시각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시차가 매우 작고, 디테일들은 그에 비해 시차가 크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복식유행의 변화는 실루엣·디테일·재질·색채 중에서 어느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실루엣의 변화는 실루엣을 구성하는 각 개별적인 부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실루엣과 디테일들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은데, 특히 주기성을 연구한 논문 중에서 시대별 스타일을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측정한 경우와 이들의 상관성에 관하여 실증적 연구를 시도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중 유연실[2]은 프랑스·한국의 최신유행 및 대중유행 스타일간의 시차연구에서 길과 스커트 스타일에 관한 결과에 따르면 길의 스타일과 상의길이·칼라나비가 관계하며, 스커트 스타일에 따라 스커트길이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Bonnie[10]는 스커트길이가 허리위치, 소매의 팔꿈치 아래와 스커트의 꼭맞는 정도가 否的인 관계, 바디스의 꼭맞는 정도와 正的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3. 버슬에 관한 고찰

1) 버슬의 정의

버슬 실루엣이 복식사상 처음 나타난 것은 17세기말경이라고 볼 수 있다.[5][25] 그 이후 다른 벨(bell)형의 스타일과 함께 250여년동안 유행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며, 특히 19세기말에는 유럽의 모든 여성들이 버슬스타일을 즐겼고,[5] 최근에 들어와서 패션에 다시 뒤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유행되고 있다.[43][44][45]

버슬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버슬은 스커트를 뒤에서 부풀리는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허리에 대는 도구로써[37][38][39][40] 정의되어 왔다. 즉 버슬이 등장한 이래 초기에는 고래수염이나 말총 또는 철사를 이용한 패티코트형태[41]이고 후기에는 독립용구가 고안되어[38][39][40] 쿠션이나 철사틀 형태,[39] 천으로 주름을 만든 것[38] 등으로써, cul de paris[37], cushionet,[39] cork rumps,[37] frisk,[42] dress improver[39][43] 등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버슬이 있었다.

둘째, 스커트의 뒤를 부풀린 실루엣으로써 버슬을 정의한 것이다. 그 형태는 첫째, 오버스커트를 걷어올려서 뒤를 모아 묶거나 뒤허리선에 집어넣어 버슬의 효과를 낸 17세기의 형태,[5] 둘째, 18세기의 빠니에(panier)나 19세기의 크리놀린(crinolin)이 축소되면서[5] 스커트의 여유분이 엉덩이로 옮겨진 형태, 세째 田中千代[37] 등은 최근 디자인 중심점을 후반부로 집중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고려된 것을 버슬로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도구로써의 버슬 자체를 사용하기보다는 뒷쪽에 단추나 리번이나 드레이프를 이용하고 강조하는 백스타일(back style)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다.

즉, 보그(Vogue) 등 최신유행잡지에 수록된 최근 재현되고 있는 버슬스타일은 패턴과 컷(cut)의 미묘한 테크닉으로 프릴(frill), 러플(ruffle), 드레이핑 (draping) 등을 사용하여 뒷부분을 강조하는 디자인이므로 종래의 버슬의 정의로는 20세기에 들어와 나타나는 버슬현상을 설명하기에 완전하지 않으며, 현시대에 맞는 버슬에 대한 개념의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2) 버슬의 역사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구성요소의 상관성과 시대별 특징의 비교에서 주로 20세기 및 19세기에 나타난 버슬스타일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므로, 주된 내용은 19세기에 한정하고, 17·18세기는 개략적인 버슬의 형태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① 19세기 이전의 버슬

17세기말에 나타난 버슬은 유행이나 강조정도는 미약했으나, 버슬현상의 시초로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버슬은 1680年경 오버스커트(over-skirt)를 끌어모아[5] 뒷중심에서 브로치나 리번으로 고정시켜 드레이프를 형성하거나,[24] 오버스커트의 앞자락을 버슬이 있는 뒤를 향해 치켜올려 이루었다.[33] 이에따라 언더스커트(under-skirt)가 노출되자, 프린지(fringe), 타셀(tassel), 브레이드(braid) 등으로 장식하였고,[24] 바디스는 스퀘어(square)나 바또(bateau) 형태의 데꼴따쥬(décolletage)와 팔꿈치 길이의 여러층 레이스를 가진 소매를 가졌다.[5](그림 1)

18세기에는 1690年 이전모드의 연속으로 초기

〈그림 1〉 17세기말 오버스커트를 버슬위에 모아 형성했던 스타일

에 잠깐 나타났다가, 1780年代에 다시 돌아왔는데,[24] 목수건(fichu)와 테일러드 칼라의 자켓과 함께 뒤를 부풀린 스커트의 까라꼬(caraco)[24]가 그 예이며 90년대초까지 지배적인 스타일이 되었다(그림 2).

② 19세기의 버슬

Norah Waugh[34]의 분류에 따라서 버슬의 형태적 특징 및 구성상의 차이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A 제 1 시기(1869~1875)

크리놀린이 폐기되면서 스커트의 여유분을 뒤에서 모으면서[24][33] 시작되었는데, 양옆에 드레이프를 가진 튜닉형태로 언더스커트가 보이는

〈그림 2〉 Caraco, 1786

것[7](그림 3)과 에이프런 형식으로 오버스커트를 앞에서 허리아래로 당긴후 리번 등의 장식을 한 것이다.[7)34)](그림 4)

1870년대초[34] 버슬스커트에는 작은 고어(gore)들을 구성에 넣거나 고어의 옆사선 솔기에 플리츠나 개더를 넣어 스커트를 풍성하게 하였다. 바디스형태[24)34)]는 주로 앞 중심을 단추로 잠그었고, 스퀘어나 작은 V형의 네크라인이나 좁은 프릴이 달린 칼라가 있거나, 야회복의 경우는 깊게 팠고, 1874년경 끼라스 바디스(cuirass bodice)라고 부르는 콜셋같이 몸에 꼭끼는 형태가 있었다. 소매는 일반적으로 직선형[24]의 단순한 형태였다. 리번, 브레이드[21] 등이 계속 유행하였고, 복잡한 패턴과 함께 화려한 장식을 가하

〈그림 3〉 크리놀린 직후의 버슬, 1869

〈그림 4〉 1873

였다.

B. 제 2 시기(1875~1882)

1875년경, 바슬스타일은 엉덩이까지는 몸에

꼭맞고 엉덩이수준 아래에서는 뒷중심선에 개더를 넣어 끌어당겨서 가늘고 직선적인 형태[7]가 되었고, 트레인(train)으로 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져, 'tied-back dress'[21] 'Sheath dress'라 하여 널리 유행 되었다.[21][34](그림 5)

이 형태는 무릎에서 매우 꼭끼어 걷기에도 매우 불편하였고, 버슬은 없거나 작아졌으며[8] 많은 꽃줄장식이나 레이스, 러플 등으로 장식하였다.[7](그림 6) 바디스 형태는 이전시기의 끼라스 바디스와 프린세스 바디스의 혼합형태가 유행하였고,[34] 앞 중심이나 뒷 중심에서 단추로 여몄다.[23][34]

C. 제 3 시기(1882~1890)

버슬이 다시 확대되어 나타났고, 장식의 의미보다는 공간을 주는 의미로써 드레이퍼리를 주었다.[8]

바스크 바디스[21]는 늘 스커트와 분리하여 만들었고, 오버스커트가 완전한 스커트가 되었는데,[32] 뒤쪽에만 버슬에 의해 크게 부풀려진 프린세스 라인을 가지면서 스커트 앞면은 직선적이며 단순하게 하였는데, 버슬이 사라지면서 기본 스커트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다(그림 7).

이 시기에 주목할 형태는 테일러드 수트의 버

〈그림 6〉 1877

〈그림 5〉 tied-back dress, 1877

〈그림 7〉 확대된 버슬, 1884

〈그림 8〉 1872

〈그림 9〉 1930년대 초

슬로써,[7] 자켓·블라우스·스커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성복의 스타일과 유사해 졌다. 이 스타일 이외에는 1890년 아우어 글래스(hourglass) 실루엣으로 이어지기까지 여성적인 취향이 우세했으며,[7] 점차 의복의 단순화가 진행되었고,[7)24)] 프릴지, 브레이드 등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7]

그런후 1899년경 버슬은 완전히 사라졌다.[7]

3) 버슬의 재현

버슬 스타일은 루이 14세 시기에 복식사상 처음 나타난 이래 지금까지 다른 형태와 특징을 가지면서 계속 재현되고 있다.

즉, 17세기말 오버스커트로 버슬의 효과를 내는 것[5]으로부터 시작하여 18세기말 빠니에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로브의 주름이 엉덩이로 옮겨져서 버슬실루엣을 형성하거나[5] 까라꼬와 바스크가 버슬로 부풀린 풍성한 스커트 위에 놓이게 되었고,[24] 19세기에 들어서 크리놀린이 사라지면서 작거나 큰 다양한 버슬과 장식을 사용한[21)41)] 버슬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21)24)]

그 후 버슬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오버스커트를 끌어모아 형성했던 복잡한 버슬 스타일은 점차 단순화되어 가고,[7)21)] 1899년경 버슬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미 스커트와 바디스에 특징을 보이고 있던 아우어글래스형이 유행되었다.[7)23)]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버슬 스타일은 과도한 버슬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엉덩이를 부풀리거나 뒷쪽을 강조한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문헌상 버슬을 착용한 스타일은 1915년 프릴과 러플, 새쉬(sash)로 장식된 옷에다 후프와 버슬을 착용하였다[29]는 것을 찾을 수 있으나, 이미 버슬을 사용한 의복보다는 후반부의 강조방향으로 디자인의 특징들이 변화되었다. 그 예로 1930년대초에 등을 깊게 파고 리번과 드레이프를 사용한 야회복을 들 수 있다.[9]

그 후 1940, 50년대로 가면서 그 당시의 실루엣을 가지면서 뒷쪽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계속 나타나고, 1960년대에도 역시 유행하던 미니스커트에 단순한 장식을 통해 뒷쪽으로 강조점을 옮긴 형태가 보이고 있다.

최근, 뒷부분에 드레이프나 리번, 방울등이나 바스크를 사용한 백 스타일(back style)이 강세

〈그림 10〉 1966

〈그림 11〉 1987

를 보이고 있는데,[45] 이미 이들 뒤를 강조한 스타일의 최근 경향이[37] 지난 역사상의 버슬스타일과 다른 특성과 의미를 가지며 디테일을 조화시켜 만들어낸 독특한 전체 효과를 갖는다[17]는 것을 의미하며, 현시대의 취미나 욕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7][30][32](그림 9~11)

Ⅲ. 研究方法 및 절차

1. 주기성 연구를 위한 자료

그 시대적 특성을 대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사용되어 왔던 최신 유행잡지인 보그(Vogue)와 보그를 인용한 서적에 포함된 드레스를 설정된 기준[1]에 의거하여 선택한 후, 1930년부터 1987년까지 1年단위로 내용분석하였다.

드레스는 Young이 제시한 세가지의 기본 실루엣 즉 버슬, 벨, 튜블라 실루엣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자료의 내용을 분석한 후, 각 실루엣이 그 연도에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한 후, 각 백분율의 수치로 플럿(plot)시켜 주기성의 존재여부와 특성을 살펴보아 각 실루엣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파악해본다.

2. 디테일의 상관성을 연구를 위한 자료

우선 버슬스타일을 가진 유행화보 또는 사진을 분류하였다.

20세기의 자료들은 주기성을 위해 채택한 자료중 선택하였고, 19세기의 자료들은 복식사를 다룬 서적중 저자가 직접 제1자료로 부터 확보한 사진이나 화보를 확인 후 선택하였다. 이 때

1) 그 기준은 첫째, 목으로부터 발까지의 사진, 둘째, 인체가 정면을 향한 직립상태의 사진, 세째, A-line은 벨형에 포함, 아우어글래스는 튜블라형에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Young의 분류가 스커트를 신체선을 따르는 것과 신체로부터 뻗쳐 나온 것의 두 개념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분류가 명확치 않거나 복합적인 형태는 제외시켰다. 네째, 의복외의 악세서리나 부도구에 의한 확대는 제외시켰다. 다섯째, 바지나 수영복 형태의 스커트는 제외시켰다.

19세기에서 사진은 거의 구할 수 없었고, 주로 유행화보에서 미리 선정된 기준[2]에 의하여 선택하였다.

그 결과 총 340개의 버슬스타일이 선택되었고, 이들을 8가지 디테일로 나누어 각 디테일별로 유목으로 분류한 후 분석하였다.

각 디테일의 유목분류는 다음과 같다.

A. 칼라의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B. 네크라인의 형태
① 하이네크(high neck)
② 내추럴(natural)
③ 데꼴따쥬 또는 스트랩리스(strapless)

C. 소매길이
① 손목길이
② 팔꿈치길이
③ 상완길이 또는 소매가 없는 경우

이때 손목길이는 손목과 팔의 $\frac{3}{4}$선 사이에 해당하는 길이이고, 팔꿈치길이는 $\frac{3}{4}$선과 $\frac{1}{4}$선 즉 상완길이 사이를 말한다.

D. 소매종류

cape, flare 형은 A형, tight 형은 H형, puff와 같은 형태는 O형, O와 H의 복합형, 소매가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으나, 복합형은 분석에 나타나지 않아 제외시키고, 최종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A형
② H형
③ O형
④ 소매가 없는 경우

E. 바디스형태
① 헐렁한 (full)
② 덜끼는 (semi-fitted)
③ 꼭끼는 (fitted)

F. 허리선의 위치
① 하이 (high waist)
② 내추럴 (natural)
③ 로우 (low waist)

G. 스커트길이
① 바닥에서 발목까지
② 종아리에서 무릎까지
③ 무릎위

H. 버슬구성형태

버슬구성형태는 Bigelow,[7] Waugh[34] 등의 정의가 각 의복의 구성을 분석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고 선행연구에 의해 분류된 경우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앞에서 분류된 버슬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즉 우선 부가된 장식(트리밍), 패턴의 조절에 따른 꾸밈(디테일), 오버스커트를 사용하여 장식한 경우(오버스커트), 버슬을 사용한 경우(버슬)로 나누어 각 의복이 소유한 형태를 위하여 위의 네 종류의 조합을 생각하여 16가지로 세분하였는데, 이중 분석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 후, 단순한 장식에서부터 네 요소를 모두 갖춘 복잡한 수준까지 다시 축소분류하여, 최종적으로 네개의 유목을 설정하였다.

① 트리밍/디테일 : 트리밍·디테일의 각 한 종류 또는 이 두 가지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경우

② 오버스커트 : 오버스커트를 사용하여 버슬을 구성하고, 여기에 트리밍과 디테일을 부가한 경우

③ 버슬 : 버슬을 사용하면서 나머지 세 형태를 더한 경우

④ 복합형 : 위의 네 종류를 모두 사용한 경우.

이들은 한 유목에만 속하도록 분류되었으므로 각 구성형태를 분류하면 각각의 번호의 수치를 갖게 되므로, 한 의복당 8개의 수치를 갖게된다.

내용분석이 끝나면, 먼저 각 디테일들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버슬구성형태와 각 디테일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x^2(chi square)를 사용하여 두 디테일 즉 버슬과 소매길이, 버슬과 허리선의 위치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때, 이들 자료들은 19, 20세기 및 일상복·

---

2) 첫째, 뒷모습을 표현한 화보, 둘째, 목으로부터 발끝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세째, 화보 혹은 사진의 내용에 대하여 부가된 설명이 있는 것을 택하여 분석한다. 네째, 위의 기준들에 의해 타당하여 선택되었더라도, 특정부위의 파악이 불가능할 때는 '분석불능'으로 표시한다.

야회복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각각 분석·비교하여 시대 및 용도에 따른 버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자료집단은 전체자료, 19세기 일상복, 야회복, 20세기 일상복·야회복의 총 5집단으로 나누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Ⅳ. 分析 및 論議

1. 주기성의 분석

벨형과 튜블라형에서는 주기적 성격을 띠며 유행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버슬형에서는 명확한 싸이클을 찾기는 어려운데, 이는 버슬이 전체비율중 대체로 적은 비율을 차지해 왔고(최대인 경우 1948년 10.5%), 1960년 전후의 표본크기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 사료된다. 그런데 1960년 이후 소규모의 진동과 함께, 버슬 스타일의 출현빈도는 1981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표 1).

튜블라형은 1960년도에 절정을 이룬 후 1972~74년에 최저치를 나타내며, 이 형태에서는 다른 절정이나 최저치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절정에서 최저치 사이의 12~14년의 진동을 근거로 대략 진폭이 24~28년일 것임을 알 수 있다(표 2).

벨형은 1943년에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고, 1930년대초의 무질서는 그 이전의 대공황의 여파가 의복유행의 주기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싸이클은 확인될 수 있었다. 즉 2개의 절정이 1941~42, 1972~74年에 나타났고, 최저치는 1960, 1963年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가능한 진폭은 30~33年으로 평균 31.5年이다(표 3).

이 두 형태는 Carmen, Troxell과 Judelle이 제언한 바와 같이 Young의 싸이클보다 훨씬 단축된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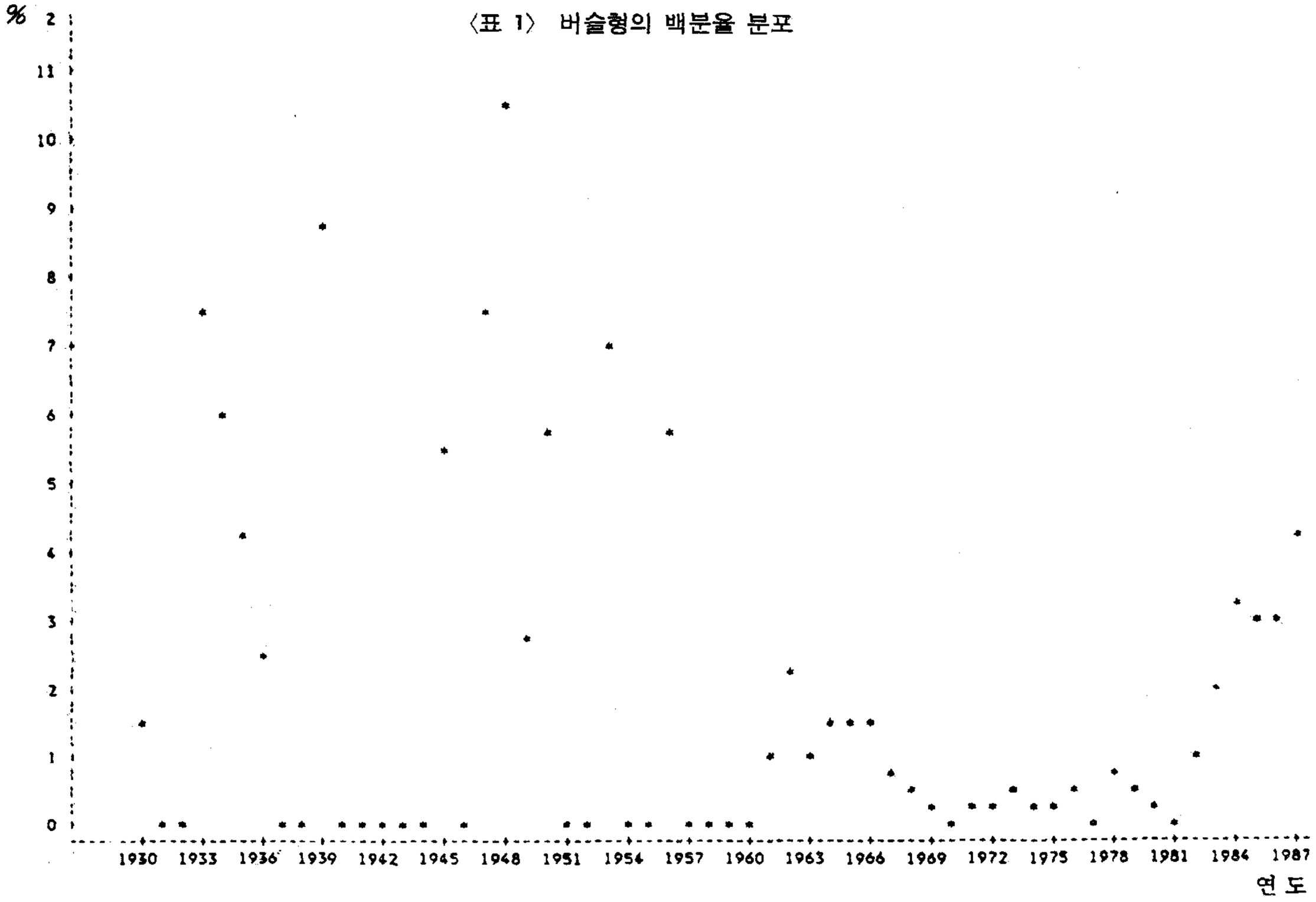
2. 디테일간의 상관성의 분석

1) 각 디테일들의 특성(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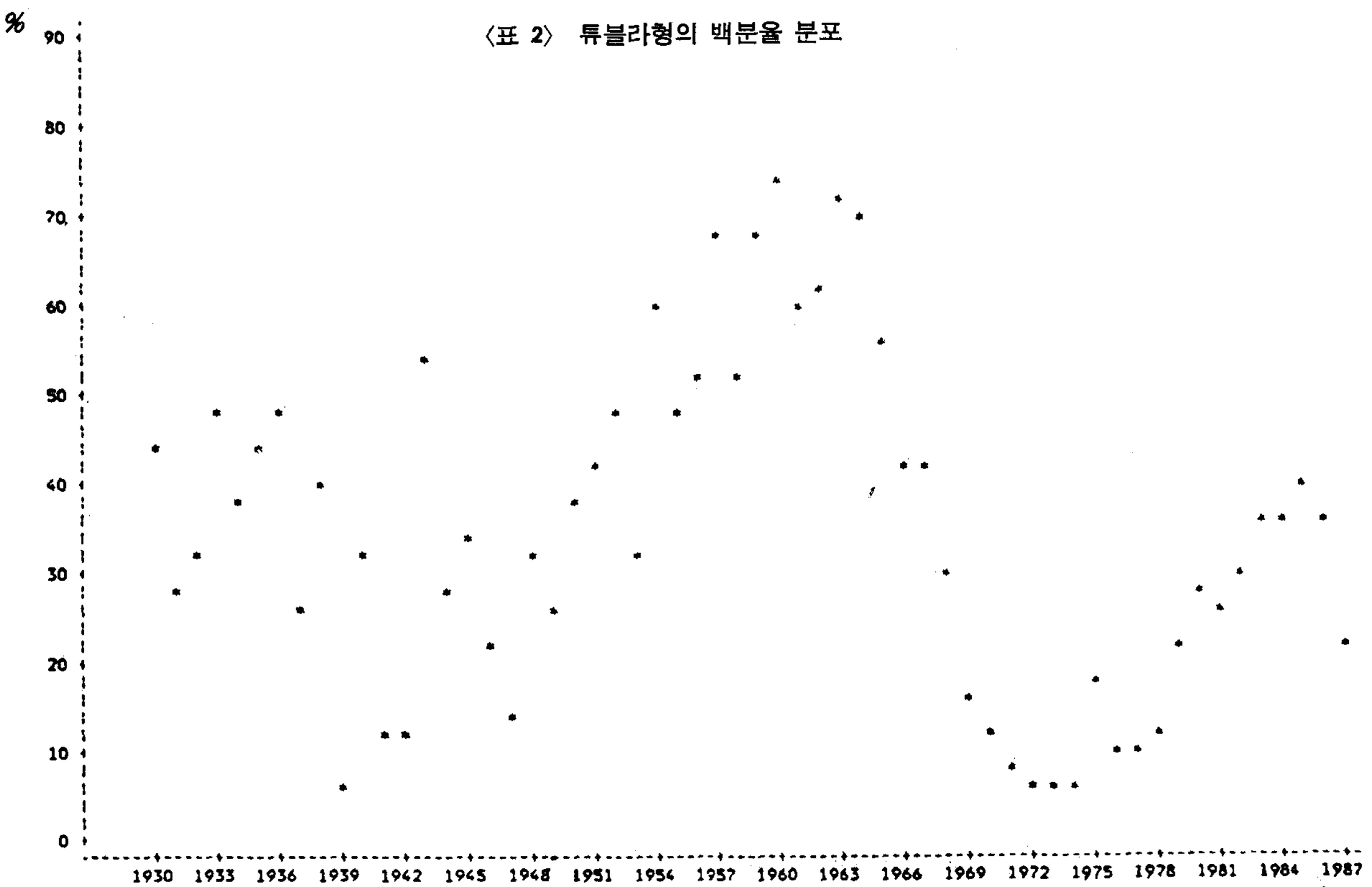
A. 시대별 특성

19세기는 버슬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의 출현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주축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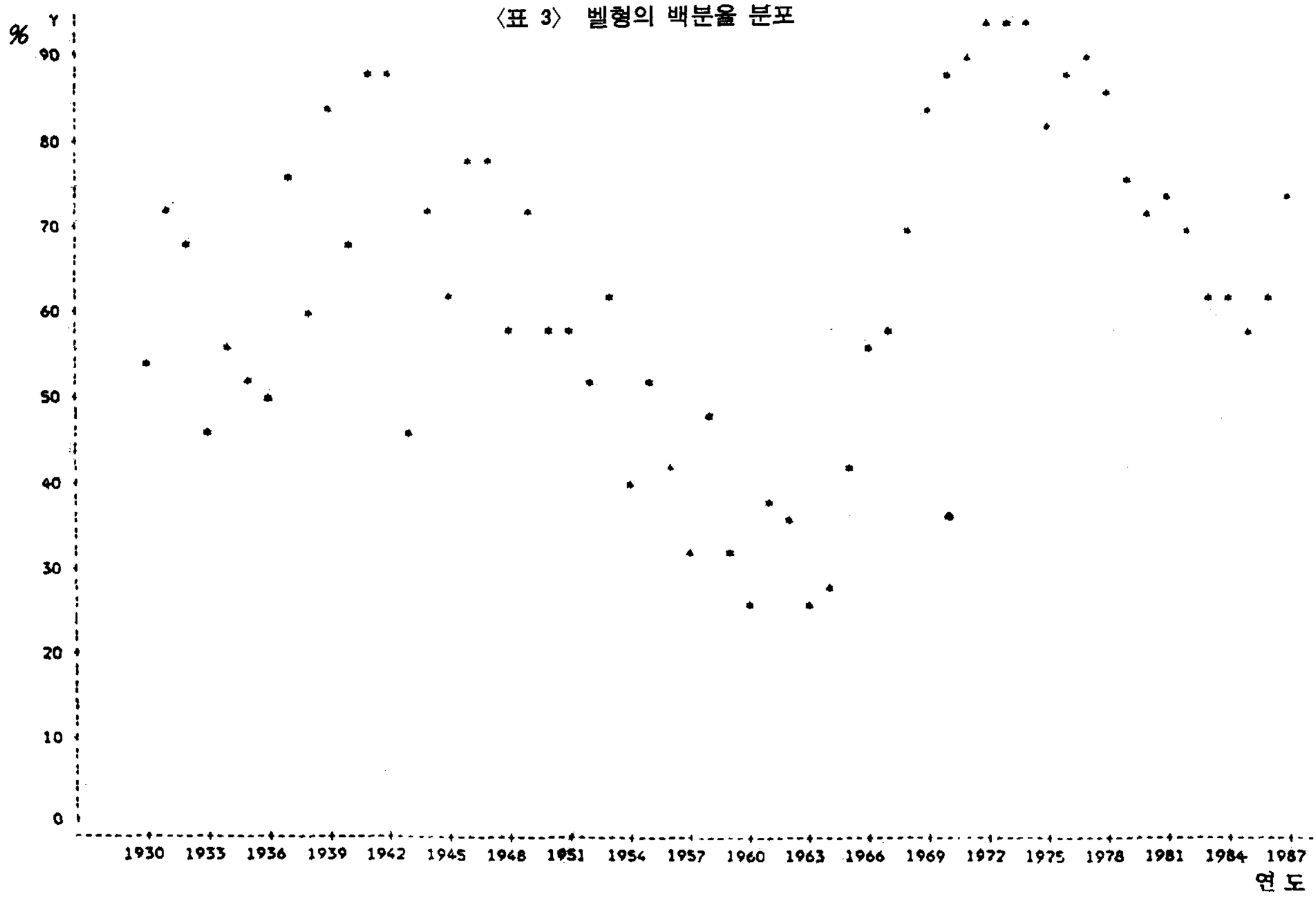
〈표 1〉 버슬형의 백분율 분포



〈표 2〉 튜블라형의 백분율 분포



〈표 3〉 벨형의 백분율 분포



〈표 4〉 디테일의 유목별 백분율 (단위 : %)

디테일	형태 / 자료분석	전체자료	19세기		20세기	
			일상복	야회복	일상복	야회복
칼라의 유무 (N=337)	있 다	43.6	95.1	47.6	34.3	10.6
	없 다	56.4	4.9	52.4	65.7	89.4
네크라인의 형태 (N=336)	하이(high)	29.4	73.1	4.8	26.2	2.8
	내추럴(natural)	20.7	18.3	0.0	36.9	18.4
	데꼴따쥬 (décolletage)	49.8	8.7	95.2	36.9	78.4
소매길이 (N=337)	손목 길이	39.6	76.2	9.5	45.6	14.3
	팔꿈치 길이	11.9	21.9	9.5	14.7	2.9
	짧은 길이	48.5	1.9	81.0	39.7	82.8
소매종류 (N=337)	A 형	14.9	21.9	38.1	16.2	5.8
	H 형	41.2	71.4	14.3	54.4	10.5
	O 형	9.3	5.7	33.3	7.4	7.9
	소매 없는 형태	34.6	1.0	14.3	22.0	69.8
바디스형태 (N=340)	풍성한(full)	5.6	0.0	0.0	9.0	9.2
	덜끼는(semi-fitted)	21.1	1.0	0.0	40.3	30.3
	꼭끼는(fitted)	73.3	99.0	100.0	50.7	60.6
허리선의 위치 (N=339)	하이(high)	16.4	14.3	19.0	16.4	17.0
	내추럴(naturnal)	55.4	59.0	42.9	64.2	50.4
	로우(low)	14.9	26.7	38.1	6.0	7.1
	없는 형태	13.4	0.0	0.0	13.4	25.5
스커트길이 (N=331)	바닥~발목	70.1	100.0	100.0	27.8	58.3
	종아리~무릎	12.0	0.0	0.0	35.2	14.2
	무릎 위	17.9	0.0	0.0	37.0	27.5
버슬구성 형태 (N=340)	트리밍/디테일	59.2	10.5	4.8	91.2	89.4
	오버스커트	4.4	3.8	0.0	2.9	6.3
	버슬사용	18.6	45.7	33.3	5.9	2.8
	복합형	17.5	40.0	61.9	0.0	1.4

을 이루고 있는 반면, 20세기에서는 독주하는 스타일은 보이지 않고 짧은 주기를 갖는 다양성의 시기이다.

그리하여 19세기에는 주로 지배적인 스타일의 실루엣, 네크라인 형태, 스커트 길이를 갖고,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 혹은 이상적 패턴을 따르게 된다. 일상복의 경우는 이런 특징들이 더 뚜렷하고, 결과는 문헌고찰의 결과를 입증하였다.

19세기의 버슬스타일은 칼라가 있고 하이네크와 일직선형의 꼭 맞는 소매와 몸에 꼭 끼는 바디스를 갖는다. 허리선의 위치는 버슬의 제1시기에서는 하이 웨이스트에서 점차 자연스러운 위치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앞이나 뒤를 예각으로 내린 로우 웨이스트를 갖는데, 백분율의 분포가 하이 웨이스트와 로우 웨이스트에서 적지 않은 비율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스타일의 변화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스커트는 전 비율이 발목길이 이하이고, 디테일과 트리밍 뿐 아니라 버슬과 같은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오버스커트를 사용하여 크게 부풀린 형태이다.

특히 소매길이에서는 계절에 따른 스타일로 인해 비율의 유사성을 기대했는데, 전체 비율의 76.2%가 손목길이이하로, 아직 신체의 노출이

사회적인 통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에서는 구성요소의 각 유목에서 유사한 비율을 보임으로써 현대 유행의 특징으로 다양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개성의 존중을 허용하게 된다. 그런데, 소매길이의 경우에서는 계절의 전 범위에서 표집된 것이므로 類目의 유사비율은 다양성의 측면보다는 계절에 의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점차 칼라없이 깊게 네크라인을 파는 데꼴따쥬가 많이 나타났고, 일상복에서도 깊게 는는 스타일이 36.9%를 차지하였다.

바디스형태는 꼭끼는 형태와 함께 약간 여유를 준 형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활동성과 편한 착용감을 선호하는 경향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허리선의 위치에서 19세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유목, 즉 허리선을 넣지 않고 의복을 구성한 형태가 나타났다. 이것은 19세기에는 가능한 종류의 모든 솔기와 다아트를 사용하여 바디스를 꼭 맞게 한 데 비하여 20세기에는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추세을 따라 바디스에 여유를 주었고 이에 따라 허리선의 솔기선을 넣지 않은 스타일이 증가한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이 시기는 버슬형태에서 단순화의 추세가 분명히 보이고 있다.

B. 용도별 특성

일상복과 야회복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 곳은 19세기에서 칼라와 네크라인, 소매길이와 종류이고, 20세기에서는 네크라인, 소매길이와 종류, 스커트길이였다. 이들은 특히 야회복의 특징적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로써 나타났다.

칼라에 있어서 19세기에서 일상복은 칼라달린 것이 95%인데 비하여 야회복은 칼라가 없는 형태가 52.4%로 두 용도별 의복사이에 다른 특성을 보인다. 20세기에서는 정도에서 차이가 보일뿐 칼라없는 경향으로 두 형태가 유사한 특성을 나타냈다. 이것은 디자인의 단순화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크라인은 19세기에서 하이네크의 비율이 73.1%인데 야회복은 깊게 판 것이 95.2%이다. 20세기에서는 일상복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19세기와 같이 깊게 판 것이 많았다. 즉 네크라인은 버슬의 전형적 스타일보다는 야회복의 특성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매길이는 19세기의 일상복에서는 손목 길이가 76.2%로 나타난 반면, 두 시대의 야회복은 짧거나 소매가 없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소매종류는 일상복에서는 꼭 맞는 일직선형인데 비하여, 야회복의 경우, 19세기는 A형이나 O형, 20세기에는 소매가 없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20세기의 일상복은 스커트길이에서 각 유목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이나, 야회복에서는 길이가 긴 경우가 많았고, 무릎위의 짧은 경우도 상당한 비율을 보였다.

2) 각 디테일들과 버슬과의 상관성(표 5)

19세기에서 최근까지 일상복과 야회복을 구분하지 않고 버슬 스타일의 구성형태와 디테일들의 상관성을 살펴보았을때, 모든 디테일들, 즉, 칼라의 유무, 네크라인의 형태, 소매길이와 종류, 바디스형태, 허리선의 위치, 스커트 길이가 모두 버슬구성형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19세기에서 일상복만 보았을 때에는 바디스형태와 허리선의 위치가 버슬구성 형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야회복에서는 어떤 디테일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디테일들이 복합형의 버슬구성형태와 함께 나타났다.

20세기에서는 일상복에서는 칼라와 네크라인에서 버슬구성형태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칼라가 없는 형태와 자연스럽게 깊게 판 네크라인이 단순한 버슬형태와 관계하면서 나타났다. 스커트길이와 종류, 바디스형태, 허리선의 위치 등 다른 항목들도 모두 19세기와는 달리 단순한 트리밍과 디테일을 사용한 버슬 스타일이 나타났다.

야회복에서는 버슬구성형태와 유의하게 관계하는 디테일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디테일들이 단순한 디테일들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와는 달리 단순화되어 가는 버슬의 구성형태에 관계되어

〈표 5〉 버슬구성형태와 각 디테일들의 상관성

자료분류 / 디테일	전체 자료 (N=340)	19 세 기		20 세 기	
		일상복	야회복	일상복	야회복
칼라	* *			* *	
네크라인	* *			*	
소매길이	* *				
소매종류	* *				
바디스형태	* *	* *			
허리선의 위치	* *	* *			
스커트길이	* *				

* * P<.01
* P<.05

있는 최근 디자인들과, 버슬구성형태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형태를 갖는 야회복에서는, 버슬구성형태가 디자인의 한 요소로써 독립적으로 존재할 뿐 실루엣으로써의 의미는 부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서는 종래의 도구 또는 실루엣으로써의 버슬에 관한 정의는 적용에 문제가 생기고, 버슬구성형태는 독립적인 부위로써, 즉 후반부에 강조점이 옮겨진 특정 스타일로써 간주되어야 한다.

또 야회복과 일상복의 주도적 특징을 19세기에서는 버슬에 따랐으나 20세기에서는 야회복으로써 독자적인 스타일을 가질 뿐, 버슬에 종속되어 있지는 않다. 즉 20세기에는 시대적인 특징이 앞서기보다는 용도에 맞는 적절한 의복의 개념이 정착되어 그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要約 및 提言

과학·기술의 진보에서 뿐만 아니라 의복에서도 혁신적인 자체내의 변화를 가졌던 19세기는, 그 이전의 과잉장식에서 벗어나, 인체에 적절하면서도 美를 잃지 않는 현대적 의미의 복식으로의 대전환을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버슬스타일은 Morton의 신체를 따르는 실루엣에 대하여 위배된다는 이론에 근거한 비난 속에서, 이제 재평가가 요구될 뿐 아니라, 현대유행에 재현되고 있는 버슬을 종래의 정의형태에 따라 해석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는 유행의 주기성의 성질규명과 구성요소간의 상관성을 보기 위하여, 최근에 재현되고 있는 버슬스타일을 중심으로 문헌고찰과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유행정기간행물인 보그(Vogue)를 택하여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유행화보 및 사진을 선택하였다. 그중 주기성을 위한 자료는 잡치전체를 분석하였고, 구성요소간 상관성을 위해서는 버슬스타일만을 선택하여 내용분석을 하여 얻었다.

실증적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0年代 이후 유행의 주기성에서 24~33년의 진폭을 갖는데, Young의 싸이클보다 훨씬 단축됨을 입증하였다.

둘째, 각 디테일들의 특성중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상복에서도 깊은 데꼴따쥬의 출현, 허리선을 절개하지 않은 형태 및 바디스의 여유분 등은 19세기와의 특징적 구별항목이고 현대적 감각을 표현한다.

세째, 버슬구성형태는 19세기의 복잡한 장식에서 20세기로 갈수록 단순한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따라서 버슬의 강조부위로써의 개념의 정착이 요구된다.

네째, 일상복과 야회복의 차이를 보인 부위는 19세기에서 칼라의 유무, 네크라인, 소매길이와 종류이고, 20세기에서는 네크라인, 소매길이와 종류, 스커트길이에서 나타났다.

다섯째, 버슬구성형태와 각 디테일과의 상관성에서 19세기에서는 바디스형태와 허리선의 위치가 복잡한 형태의 버슬구성과 유의한 관계를 가졌고, 20세기에서는 칼라의 유무와 네크라인에서 단순한 형태의 버슬구성과 관계가 있었다. 또 야회복에서는 버슬구성형태와 상관을 보인 디테일이 없었고 독립적이었다.

이상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제언하면, 주기성의 구체적 실례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기성에 관한 시대별 추이를 구성요소에 적용시키는 것과, 이들 변화의 수학적 모델을 찾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국내 문헌

1. 박성수, 역사학개론, 서울 : 삼영사, 1982.
2. 유연실, "의복유행의 형태적 변화와 시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1.
3. 이순흥, "실루엣의 변천에 관한 고찰," 복식창간호, 1977, p. 131.
4.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pp. 172~177, p. 190.
5.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87, pp. 168~204.
6. 조경희, "세계패션흐름에 나타난 실루엣과 경제와의 비교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684.

외국 문헌

7. Bigelow, *Fashion in History: Western dress, Prehistoric to Present, Minneapolis:* Burgess Pub., 1970, pp. 257~271, p. 361.
8. Black and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London: Orbis.
9. Bond, D., *The Guinness Guide to 20th Century Fashion*, London: Guinness Supelatives Limited, 1981.
10. Bonnie, "*Cyclical Fashion movement: Women's Day Dress: 1860~1980,*"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5-2, 1987, pp. 15~20.
11. Bullock, A., "*The historian's purpose: History and metahistory,*" History Today, Vol. 7-2, 1951.
12. Carmen, J.M., "*The fate of fashion cycle in Our Modern Society,*" in Gordon, W. Ed., Fashion Marketing,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3.
13. Collingwood, 이상현 역, 역사학의 이상, 백론논총 1, 1976.
14. Contini, M., *Fashion: From acient Egypt to the Present Day*, N.Y.: The Odyssey Press, 1965, pp. 301~313.
15. Creekmore, A.M., "*Body proportions of Fashion Illustrations, 1840~1940, Compared with the Greek Ideal of Female Beauty*", Home Econcmics Research Journal, Vol. 7-6, 1979, pp. 379~388.
16. Greenwood, *Fashion Innovation and Marketing*, N.Y.: Macmillan Pub. Co., Ltd. 1978, pp. 50~60.
17. Horn, M., *Second Skin*,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pp. 100~234.
18. Kelley, E. and Robinstine, C., "*Relating fashion change to Social change: A Methodological Approach,*"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0-1.
19. Kroeber and Richardson, "*Three Centuries of Women's Dress Fashion: A quantitative Analysis,*" 1940, in Gordon Ed., Fashion Marketing,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3, p. 47~104.
20. Lang and Lang, *Collective dynamics*, N.Y.: Thomas Crowell Company, 1961.
21. Lester and Kerr, *Historic Costume*, Illinois: Chas A. Bennett Co, Inc., 1967.
22. Lowe J. and Lowe E., "*Cultural Pattern and Process: A Study of Stylistic change in Women's Dress,*"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Vol. 84, 1982, pp. 521~544.
23. McJimsey, H.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3, pp. 44~62.
24. Payne, B., *History of Costume*, N.Y.: Harper & Row Publishers, 1965, p. 219, pp. 374~528.
25. Peltz, L.R., *Fashion: Color, Line and Design*, 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al Pub., 1980.
26. Roach, M. and Eicher, J.,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 1965.
27. Reynols, "*Cars and Clothing: Understanding Fashion Trends,*" Jounral of Marketing, Vol. 32-7, 1968, pp. 44~49.
28. Robinson, "*Style changes: cyclical inexorable and foresee able,*" Harvard Business Review, 1975, 11~12, pp. 121~126.
29. Robinson, Julian, The Golden Age of style, London: Orbis Publishing. 1976.
30. Rosencranz, M.L., *Clothing Concepts: A Social-psychological Approach*, N.Y.: Macmillan Pub. Co. Inc., 1972, pp. 118~124.
31. Sproles,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sota: Burgess Pub. Co., 1979.
32. Troxell and Judelle, *Fashion Merchandising*, N.Y.: McGrawHill, Inc., 1971, pp. 3~67.

33. Turner, W., *The Mode in Costume*, 2nd Ed., N.Y.: Scribners, 1958, pp. 178~313.
34. Waugh, N., *The Cut of Women's Clothes: 1600~1930*, N.Y.: Theatre Arts Books, 1968, p. 114, pp. 143~147.
35. Winakor, G., "*Time lag Between High Fashion and Accepted Fash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1955, 5.
36. Young A.B., *Recurring Cycles of Fashion*, 1937, in Gordon Ed., Fashion Marketing,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3, pp. 107~136.

백과사전류 및 기타

37. 田中千代, 복식사전 증보판, 同文書院, 1969.
38. 증보판 服裝大百科事典 下, 服裝文化協會, 文化出版局, 1969.
39.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Calasibetta, NY: Fairchild Pub., Inc., 1975.
40. Picken, M.B., *The Fashion Dictionary*, 2nd Ed. NY: Funk & Wagnalls, 1973.
41. *The New Encyclopaedia Britainnica* Vol. 2,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74.
42. *The New Oxford Illustrated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43. 조선일보, 1986. 8.6.
44. 주간섬유, 1986, 7.30., 8.6.
45. 주간섬유, 1987. 2.4., 2.11.

Abstract

A Study on the Periodicity of Fashion focused on the bustle styles

Koo, Mi Ji
Rim, Won Ja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periodicity of fashion in modern society and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detail and bustle constitution through the bustle styles that have been recently revived.

For the study of periodicity, fashion plates or pictures in Vogue or in the books related Vogue since 1930 were selected, and were analyzed into bell, tubular and bustle silhouettes that were devided by Young (1937).

And for the study of the correlation of detail and bustle constitution, fashion plates and pictures that were related to the bustle in the 19th century and the 20th century were selected, and according to the epoch (19C, 20C) and the use (daytime dress or evening dress), each of them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fter 1930, 24~33 year amplitude was founded at tubular and bell shape, that proved shorter cycles than Young's.
2. In each characters of clothing details, deep décolletage, undivided waistline, spaced bodice in daytime dress were partl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20th century costume.
3. The form of bustle was converted from the complex ornament of the 19th century to the simple shpae of the 20th centur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hat the definition of bustle be changed not the previous definition as the silhouette and instrument but that as the emphasis dimension.
4. The dimensions that showed difference at daytime dress and evening dress were 'existence of collar', 'neckline', 'length of sleeve', 'kind of sleeve' for 19th century, and 'neckline', 'length of sleeve', 'kind of sleeve,' 'length of skirt' for 20th century.
5. Correlations with the bustle constitution and details were shown at bodice and waistline with the complex bustle in the 19th century and at collar and neckline with the simple bustle in the 20th century.